

#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 관형사형 어미 오류 연구

- 한국어 수준별 오류 양상을 중심으로 -

응웬 티 프엉 투\*, 박미은\*\*

- 
1. 서론
  2. 연구 대상 및 방법
  3.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오류 개괄
  4.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오류 분석
  5. 결론
- 

## 1. 서론

한국어 교재에서 문장 유형은 단문, 접속문, 내포문 순으로 내용이 배열된다. 이는 이필영·임유중(200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아의 언어 발달 맥락 순서와 문장 유형의 난도와도 일치한다. 내포문은 유형선(2007:60)에서 제시한 것처럼 한국인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문장 유형으로<sup>1)</sup> 한국어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

\* 제1저자,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 교신저자,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연구원

1) 유형선(2007:60)에서는 국어 교과서의 문장별 출현 빈도를 살펴 본 후, 내포문이

위해서는 복합문 특히 내포문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주목하였듯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내포문 사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서형, 홍종선 2010, 성지연 2010).

특히 언어유형론적으로 한국어는 교착어이고 베트남어는 고립어에 속하여 내포문 사용에서 차이가 크다. 응웬 티 프엉 투·양명희(2021)에서는 베트남어에는 명사절 내포문이 없고 베트남어 관형사절이 한국어 관형사절에 대응될 수 있어도 베트남어 문장에 내포문 표지(어미)가 없는 등의 차이를 밝히고, 이러한 차이점이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내포문을 학습하기 어려운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어 내포문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내포문 사용의 문제점과 오류를 파악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내포문 사용 오류 양상을 살펴볼 것인데, 특히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양적으로 적지 않은 관형사절 연구 결과에 비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내포문 사용 양상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학습자의 작문 분석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조수현(2010), 최보선·박수빈(2019)이 있고, 보문절(동격 관형절)에 관한 연구는 이준호(2013)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습자의 관형절, 동격 관형절에 대한 사용 양상을 밝혔고 학습자의 오류 원인은 내포절 표지(어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혁미평·홍종선(2016)에서는 빈칸 채우기, 문장 완성하기, 문장 만들기, 유형 판단하기, 번역하기 등과 같은 과제로 학습자의 관형사절에 대한 인식과 사용 오류 및 원인을 파악하였고, 서희정(2018)은 문장 구조 변화 과제를 통해 관형절 사용 양상을 살폈으며 왕현풍(2021)은 문법 판

---

77.1%로 사용 빈도가 제일 높다고 제시하였다.

단 테스트, 번역 과제, 구어 인터뷰로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 변이를 연구한 바 있다.

말뭉치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내포문 사용 양상을 살핀 연구들도 있으나(한송화 2015, 정진 2020), 연구 대상 학습자는 주로 중국인 학습자이다. 한송화(2015)는 언어권에 따라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양상을 관찰한 연구인데도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없었다.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연구는 주로 어휘나 발음 오류에 관한 대조연구로(응웬 티 꾸잉안 2020<sup>2)</sup>), 한국어 문장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지금까지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관형사절 사용 양상 연구로는 팜홍프엉(2016), 덩티투히엔(2014)에 불과하다. 두 연구 모두 작문 분석 방법으로 진행하여 자료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학습자 말뭉치<sup>3)</sup>에 나타나는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에 대한 실제적인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 말뭉치에서 관형사형 어미 오류를 추출하여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관형사형 어미와 오류 유형, 오류 층위별로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 이 연구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베트남에 관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 연구로서 ‘발음’ 연구가 51편, ‘대조 연구’로서 ‘어휘’ 연구가 47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구축된 것으로 전체 말뭉치의 규모는 원시 말뭉치 5,220,564 어절, 형태 주석 말뭉치 3,704,586 어절, 오류 주석 말뭉치는 1,153,848 어절의 규모이다. 서상규(2002:135-136)에서는 학습자 말뭉치는 외국인 학습자가 생산한 자료의 집합체로서 학습자 진단 또는 특정 학습자 집단의 공통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하며, 학습자의 특징적인 오류나 중간 언어적 특성을 변인별로 밝힐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고석주(2004:18)는 학습자 말뭉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가 생산한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수준을 판단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가장 적절한 학습 자료와 교수법을 선택하게 하는 지표라고 하였다.

## 2. 연구 대상 및 방법

먼저, 학습자 말뭉치에서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 오류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대한 많은 오류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관형사형 어미를 추출하였다. 오류 위치에서 관형사형 어미를 선택한 후 상세 조건에서 학습자 모국어를 베트남어로 지정한 결과를 추렸다. 이를 통해 총 487개 표본, 1,459 어절이 추출되었는데, 이 결과는 관형사형 어미뿐만 아니라 ‘수/때/것’등과 같은 의존 명사 앞에 놓여 덩어리 표현을 이루는 관형사형 어미까지 포함된 것이다.

<표1> 관형사형 어미 오류 예시(1급)<sup>4)</sup>

표본 번호	원형 태	교정 형태	앞 문맥	중심어	뒤 문맥	오류 양상	오류 층위
28807	ㄴ	는	노래를	잘한	남자예요	REP	ST
7804	는	첨가	저는	멋있는하 고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ADD	
7616	-	ㄹ	한국어 를	배우	7월까지 계획입니다	OM	ST
13463	ㄹ	ㄴ	한국	올 지	5년 됐습니다	REP	ST

<표1>은 1급 수준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가 생산한 오류문들이다. 13463번 용례는 나머지 용례와 달리 덩어리 표현에서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의 용례이다. 관형사형 어미를 잘못 사용한 오류문(#28807, 7804, 13463)와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다른 표현을 사용하거나 전성어미를 누락한 오류(#7616)도 발견된다. 또한, 같은 오류 위치에 오

4) 관형사형 어미 위치에 출현한 오류에 집중하기 위하여 다른 오류들은 수정된 상태로 제시한다. 오류 양상에서 REP는 Replacement(대치), ADD는 Addition(첨가), OM은 Omission(누락)을 뜻한다. 오류 양상에서 ST는 Syntax Tense(통사 시제)를 뜻한다.

류 양상, 오류 층위의 오류 관정이 다 있는 경우(#28807, 7616, 13463)도 있는 반면에, (#7804)처럼 오류 양상이나 오류 층위 중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sup>5)</sup>

오류 유형 분석을 위한 기준은 강현화 외(2016:17-19)에서 제시한 오류 주석 체계 틀을 따랐다. 강현화 외(2016)에서는 오류의 위치, 오류의 양상, 오류의 층위를 대분류로 삼아 오류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오류의 위치는 오류가 어디에서 출현하였는지에 관련된 것으로 오류가 실질어의 자리에서 출현하였는지, 기능어의 위치에서 출현하였는지 등이다. 오류 양상은 관형사형 어미가 누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인지, 어떤 어휘가 첨가되면서 발생한 오류인지 등에 관한 것이다. 오류의 층위는 발음, 형태, 통사, 담화 등 어떤 층위에서 발생한 오류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다.

<표2>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오류 유형

오류 위치	오류 양상	오류 층위
실질 어휘(고유 명사, 동사, 형용사 등), 기능 어휘(주격조사,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어미 등), 구 단위 표현, 표현 문형	누락, 대치, 첨가, 오형태	발음, 형태, 통사, 담화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베트남어권 학습자 1급에서 6급까지의 관형사형 어미 위치 오류는 총 1,459 어절로 조사되었다. 학습자 말뭉치에서 관형사형 어미 위치에 나타난 오류는 한 용례 당 하나인 경우도 있고 그 이상인 경우도 있으므로 어절 당 출현 빈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5)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오류 관정은 오류 층위와 오류 양상으로 나누어서 한다. 이는 오류 범주 간의 중복과 충돌을 피하고 오류 주석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강현화 외 2015:96)

<표3> 급수별 관형사형 어미 오류 출현 빈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총
137	127	304	373	289	229	1,459

이어지는 장부터는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절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 3.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오류 개괄

이 장에서는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오류의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겠다. 학습자의 관형사형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형사형 어미들의 오류 형태와 교정된 형태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교정된 형태를 통하여 오류 발생 원인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먼저 오류문을 정문으로 재구성한 뒤에 오류의 유형을 형태소 단위를 중심으로 주석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강현화 외 2015:89).<sup>6)</sup> 본고에서도 교정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 -던’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다. 먼저 급수별로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의 출현 빈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급수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 오류 빈도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은/ㄴ	16	11.7	16	12.6	31	10.2	61	16.4	51	17.6	45	19.7
는	22	16.1	23	18.1	46	15.1	58	15.5	45	15.6	36	15.7
을/ㄹ	81	59.1	64	50.4	131	43.1	161	43.2	118	40.8	63	27.5

6) 오류 분석 절차는 이정희(2003), 이승연(2012:180) 참조.

던	1	0.7	1	0.8	4	1.3	3	0.8	2	0.7	9	3.9
기타 <sup>7)</sup>	17	12.4	23	18.1	92	30.3	90	24.1	73	25.3	76	33.2
총	137	100	127	100	304	100	373	100	289	100	229	100

오류 층위로는 발음<sup>8)</sup>, 형태, 통사 층위에서 오류가 나타났고, 세부적인 오류 양상으로는 누락, 대치, 첨가, 오형태 오류가 출현하였다. 급수와 관형사형 어미 유형에 따른 오류 유형을 간단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5> 급수 및 오류 유형별 관형사형 어미 오류 양상

		발음	형태	통사	누락	대치	첨가	오형태	총
1급	은/ㄴ	6 (3.8%)	4 (2.5%)	1 (0.6%)	4 (2.5%)	2 (1.3%)	-	4 (2.5%)	21
	는	3 (1.8%)	2 (1.3%)	2 (1.3%)	14 (8.8%)	3 (1.8%)	-	2 (1.3%)	26
	을/ㄹ	46 (28.7%)	1 (0.6%)	8 (5%)	23 (14.4%)	13 (8.1%)	1 (0.6%)	3 (1.8%)	95
	던	1 (0.6%)	-	-	-	-	-	-	1
	기타	-	-	-	-	10 (6.3%)	7 (4.4%)	-	17
	총	56 (35%)	7 (4.4%)	11 (6.9%)	41 (25.6%)	28 (17.5%)	8 (5)	9 (5.6%)	160
2급	은/ㄴ	2 (1.3%)	3 (2%)	4 (2.6%)	6 (3.9%)	5 (3.3%)	-	3 (2%)	23
	는	1 (0.7%)	1 (0.7%)	5 (3.3%)	10 (6.6%)	11 (7.2%)	-	2 (1.3%)	30
	을/ㄹ	32 (21%)	1 (0.7%)	6 (3.9%)	14 (9.2%)	17 (11.2%)	1 (0.7%)	3 (2%)	74

7) '기타' 유형은 첨가 오류가 나타나서 ADD(Addition)로 표시된 것이나 관형사형 어미가 아닌, '-(으)면'이나 '-고', '-게' 등과 같은 다른 범주의 어미로 수정된 오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8) 강현화 외(2015)에서는 발음 오류를 음소, 음절, 음운규칙 오류로 구분하여 구어와 문어에 두루 나오는 변이음 오류와 음절 층위의 오류를 주석하였다. 베트남어권 학습자의 발음 오류는 구어에서만 발견된 오류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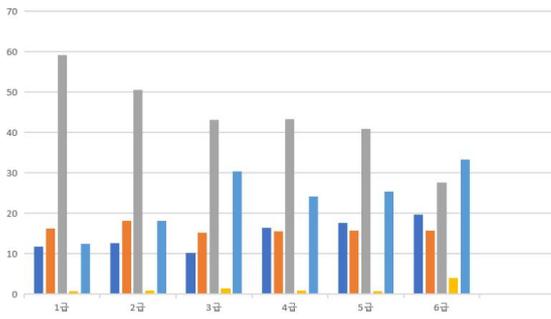
	던	-	-	1 (0.7%)	-	1 (0.7%)	-	-	2
	기타	-	-	-	1 (0.7%)	14 (9.2%)	8 (5.3%)	-	23
	총	35 (23%)	5 (3.3%)	16 (10.5%)	31 (20.4%)	48 (31.6%)	9 (5.9%)	8 (5.3%)	152
3급	은/ㄴ	6 (1.7%)	5 (1.4%)	8 (2.3%)	6 (1.7%)	12 (3.5%)	-	5 (1.4%)	42
	는	3 (0.9%)	3 (0.9%)	14 (4%)	12 (3.5%)	23 (6.6%)	1 (0.3%)	4 (1.2%)	60
	을/ㄹ	63 (18.2%)	3 (0.9%)	9 (2.6%)	24 (6.9%)	34 (9.8%)	-	5 (1.4%)	138
	던	-	-	3 (0.9%)	-	4 (1.2%)	-	-	7
	기타	5 (1.4%)	3 (0.9%)	4 (1.2%)	9 (2.6%)	57 (16.5%)	18 (5.2%)	3 (0.9%)	99
	총	77 (22.3%)	14 (4%)	38 (11%)	51 (14.7%)	130 (37.6%)	19 (5.5%)	17 (4.9%)	346
4급	은/ㄴ	12 (2.8%)	16 (3.7%)	3 (0.7%)	14 (3.2%)	19 (4.4%)	-	16 (3.7%)	80
	는	8 (1.8%)	9 (2.1%)	10 (2.3%)	9 (2.1%)	31 (7.1%)	-	9 (2.1%)	76
	을/ㄹ	41 (9.4%)	10 (2.3%)	9 (2.1%)	35 (8%)	77 (17.7%)	-	11 (2.5%)	183
	던	-	-	2 (0.5%)	-	3 (0.7%)	-	-	5
	기타	-	2 (0.5%)	-	6 (1.4%)	55 (12.6%)	26 (6%)	2 (0.5%)	91
	총	61 (14%)	37 (8.5%)	24 (5.5%)	64 (14.7%)	185 (42.6%)	26 (6%)	38 (8.7%)	435
5급	은/ㄴ	9 (3.2%)	14 (4.9%)	3 (1%)	5 (1.8%)	11 (3.9%)	-	15 (5.3%)	57
	는	-	1 (0.4%)	4 (1.4%)	3 (1.1%)	26 (9.2%)	-	2 (0.7%)	36
	을/ㄹ	37 (13.1%)	3 (1%)	6 (2.1%)	12 (4.2%)	65 (23%)	-	3 (1%)	126
	던	-	1 (0.4%)	-	-	1 (0.4%)	-	-	2

	기타	-	4 (1.4%)	-	4 (1.4%)	28 (9.9%)	20 (7.1%)	6 (2.1%)	62
	총	46 (16.3%)	23 (8.1%)	13 (4.6%)	24 (8.5%)	131 (46.2%)	20 (7.1%)	26 (9.2%)	283
6급	은/ㄴ	2 (0.8%)	5 (2.1%)	13 (5.4%)	3 (1.3%)	22 (9.2%)	-	6 (2.5%)	51
	는	-	4 (1.7%)	9 (3.8%)	3 (1.3%)	21 (8.8%)	-	4 (1.7%)	41
	을/ㄹ	16 (6.7%)	1 (0.4%)	7 (2.9%)	8 (3.3%)	34 (14.2%)	-	1 (0.4%)	67
	던	-	-	4 (1.7%)	-	7 (2.9%)	-	-	11
	기타	-	3 (1.2%)	-	2 (0.8%)	46 (19.2%)	15 (6.3%)	3 (1.3%)	69
	총	18 (7.5%)	13 (5.4%)	33 (13.8%)	16 (6.7%)	130 (54.4%)	15 (6.3%)	14 (5.9%)	239

<표4>와 <표5>에서 보인 바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중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어미는 ‘-을/ㄹ’이다. 어떤 급수이든 ‘-은/ㄴ’, ‘-는’과 ‘-던’의 교정형태 비율이 ‘-을/ㄹ’보다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발음 오류와 누락, 대치 오류의 전체적인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1급에서는 누락 오류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급부터 대치 오류의 비율이 다른 오류 유형보다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오류 중에 ‘-던’의 교정형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전체 1,459 건의 용례 중에 ‘-던’의 교정형태는 총 20회에 불과하였고, ‘-던’을 학습한 시기 이후인 4~5급에서도 ‘-던’의 오류 빈도가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형태 오류 역시 발음이나 통사 오류에 비해 적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이상, 급수별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급수별 관형사형 어미 오류 양상

## 4.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오류 분석

### 4.1. 오류 층위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 분석

이 절에서는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오류를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해본다. 오류의 층위에 따라 ‘발음, 형태, 통사’ 오류로 나누고 급수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 4.1.1. 발음 오류

발음 오류는 1급~6급까지 모두 출현하는데, 1급에서 제일 많이 출현하고, 급수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를 급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6> 급수에 따른 발음 오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발음 오류 수	56	35	77	61	46	18
백분율(%)	35	23	22.3	14	16.3	7.5

발음 오류는 1급에서 6급까지 다 발생하지만, 1급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며 급수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학습자의 언어권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현상인데, 모국어와 목표어의 음운 체계가 다른 경우 초급일 때는 발음 오류가 많이 발생하지만 급수가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된다.<sup>9)</sup>

발음 오류 중에서는 ‘음소’ 오류가 제일 많았다. ‘ㄹ’ 발음이 ‘ㄴ’ 발음(1ㄱ, 1ㄴ), ‘ㄴ’ 발음이 ‘ㅇ’ 발음(1ㄷ), ‘ㄹ’ 발음이 ‘ㅇ’ 발음(1ㄷ)으로 나거나 발음이 누락되는 경우(1ㄱ) 등과 같은 오류가 있었다.

- (1) ㄱ. 음 주말에 보통 친구와 같이 간(√갈) 거예요. (1급/구어 /#18489)  
 ㄴ. 저는 봉사 활동은(√을) 통해 자신감은(√을) 키운(√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6급/구어#8233)  
 ㄷ. 저는 친향(√친한) 친구(√친구) 두명이 있어요. (1급/구어 /#28590)  
 ㄹ. 그 어렸을 때(√어렸을 때) 게임을 하지 않는데 지금 게임만 이틀아 게임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3급/구어 /#8229)  
 ㅁ. 만드(√만들)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6급/구어 /#19039)

발음 오류는 ‘은/ㄴ/는/을/ㄹ’ 중에서 ‘을/ㄹ’, 특히 ‘ㄹ’ 발음 오류가 제일 많았다(235/293회). 주로 (1ㄱ, 1ㄴ)처럼 종성 위치의 ‘ㄹ’ 발음을 ‘ㄴ’의 발음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ㄹ’ 음소는 ‘-을/ㄹ 것이다’, ‘-을/ㄹ

9) Brown(2000:224)에서 모국어로부터의 언어 간 전이가 특히 제2언어 학습 초기 단계에 많이 일어난다고 한 바 있고, Dulay&Burt(1973)에서는 82%의 오류는 목표어 학습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정희 2003, 재인용).

통해, ‘-을/르 때’ 등과 같은 덩어리 표현으로 배우게 된 문법 항목에서 나타날 때도 ‘ㄴ’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보아 시제 오류나 조사 오류라기 보다는 실수로 범한 발음 오류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오류는 6급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 잘못된 발음으로 굳어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언어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베트남어에는 ‘르’ 종성이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어에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받침 발음이 있기는 하나, ‘르’ 받침은 없기 때문에 ‘르’ 받침 발음을 학습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양상을 보이곤 한다.

#### 4.1.2. 형태 오류

형태 오류 중에서는 주로 ‘용언 활용’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데, 활용 오류와 오형태 오류가 상당수 겹쳐진 것을 볼 수 있다. 활용 오류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된다.

<표7> 급수에 따른 활용 오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오류 수	7	5	14	37	23	13
백분율(%)	4.4	3.3	4	8.5	8.1	5.4

앞 절에서 <표 5>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형태 오류는 다른 오류에 비해 많지 않고 특히 4급과 5급에서 많이 출현한다.<sup>10)</sup>

활용 오류의 원인으로는 불규칙 활용을 잘못 적용한 사례, 동사와 형용사의 혼동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불규칙 활용의 오적용은 5급

10) 초급 수준에서는 ‘있다/없다’와의 결합 문제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급에 2번, 2급에 1번, 3급에 1번으로 나타나,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

까지만 나타났고, 품사 혼동은 6급까지도 이어졌다.

불규칙 활용 오적용은 형태 오류 총 99회 중에 26회가 나타났고, 동사·형용사 혼동 문제는 53회로 조사되었다. 이 오류들은 목표어 학습 과정에 일어난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 아래에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예문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 (2) ㄱ. 놀이 중에서 제일 재미있은(√재미있는 것은) 인형놀이예요.  
(3급/문어/#974)
- ㄴ. 편하게 살는(√사는) 것이 항상 웃고 행복하게 도울 수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4급/문어/#7066)
- ㄷ. 근데 어머니가 아버님이 존는(√좋은) 사람이예요. (1급/구어/#14078)
- ㄹ. 저와 아기들에게 필요하는(√필요한)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5급/문어/#14198)
- ㄹ. 교육을 하는 사람이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하지만 학생의 마음이 싫다고 하고 싶지 않는(√않은) 경우가 많다. (6급/문어/#13405)
- ㅂ. 우리 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 “한 웃음으로 열 번 약을 먹다는(√먹는다는) 말이 있다. (6급/문어/#15933)

(2ㄱ)는 ‘있다, 없다’에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를 잘못 쓴 것이다. (2ㄴ)와 (2ㄷ)는 불규칙 활용하는 용언인데 규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고, (2ㄹ~ㅂ)는 동사와 형용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2ㄹ)처럼 ‘-고 싶다’나 ‘-아/어지다’ 등과 같은 보조용언들과 결합할 때나 장형 부정 표현과 결합할 때, (2ㅂ)처럼 동격 관형사절의 종결어미와 결합할 때 관형사형 어미를 잘못 쓴 오류도 있었다. 이러한 오류는 목표어의 복잡성 때문에 이해가 부족하여 과잉 적용<sup>11)</sup> 오류를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교육 현장에서 이에 대해 주목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4.1.3. 통사 오류

통사 층위의 오류로는 시제 오류가 주로 출현하였다. 급수별로 오류 횟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8> 급수에 따른 시제 오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총
과거	1	5	12	5	3	15	41
현재	2	5	16	10	4	10	47
미래	8	6	10	9	6	8	47
총 시제 오류 횟수	11	16	38	24	13	33	135
백분율(%)	4.4	10.5	11	5.5	4.6	13.6	

급수별로 시제 오류의 출현 빈도차는 크지 않은데 2급(10.5%), 3급(11%)과 6급(13.6%)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각 시제 간 오류 빈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현재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서 과거를 잘못 사용한 것(42/47회)과 과거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서 현재를 잘못 쓴 것(23/41회), 미래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과거를 잘못 쓴 경우(36/47회)가 가장 많았다. 특히, 미래 시제를 잘못 쓴 것은 위의 발음 오류 부분에서 분석한 것처럼 ‘ㄹ’ 음소 발음을 ‘ㄴ’으로 잘못 발음한 것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11) 과잉 적용은 규칙이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형태만을 기억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이정희 2003:94)

(3)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잘할 수 있다고(√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급/구어/#19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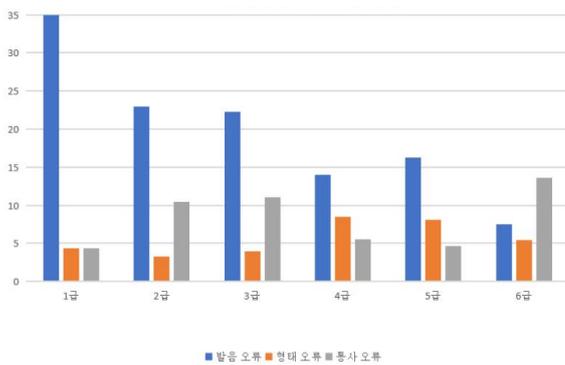
위 (3)의 오류는 ‘을/르 수 있다’를 ‘은/니 수 있다’로 잘못 쓴 것이다. ‘을/르 수 있다’는 덩어리 표현으로 학습되는 문법 항목이므로 덩어리 항목을 잘못 학습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잘못된 발음으로 기억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4) 가. 한국 올지(√온 지) 5년 됐습니다. (1급/문어/#13463)
- 나. 수업이 끝날:에(√끝난 후에) 친구의 집에 가서 했습니다. (3급/문어/#969)
- 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하면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이가 나빠진 것 같다(√나빠질 것 같다). (5급/문어/#7459)
- 르. 작년에 온 때(√왔을 때) 정말 당황했는데요. (2급/구어/27730)
- 미. 그러면 목욕하는(√목욕한) 물로 청소하거나 우유를 버리기 전에 다 먹는 것... (4급/문어/6683)
- 비. 그 때 우리 나라가 전쟁 중이라서 곳곳마다 ①죽을(√죽은) 사람이 많았고 먹는(√먹을) 쌀이나 옥수수 전혀 없었다. (6급/문어/#29924)

오류 양상별로 살펴봤을 때는 시제를 표현하는 어미를 누락하거나 대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특히 1급에서 3급까지, 주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시기에 많이 발견된다. 주로 과거 시제 오류인데, ‘-은/니 지’, ‘-은/니 후에’ 등과 같은 덩어리 표현에서 사용된 ‘-은/니’의 오류이다(4ㄱ~ㄴ). 중·고급 이상부터는 문장이 길어지고 연결된 절의 수가 늘어나면서 내포절의 시제를 잘못 쓴 경우도 발견되었다. (4ㄷ~ㄹ)은 문장 안에 있는 시제의 표지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4ㄷ)는 ‘그렇게 계속하면’에 이어지는 후행절은 미래 시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4ㄷ)은 ‘작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도 현재 시제 형식이 사용된 오류이다. 그리고 (4ㄱ, ㄴ)의 내포절 시제는 발화 시점이 아니라 내포절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시제표지가 사용되어야 한다. (4ㄱ)은 청소하는 시점에서 목욕하는 사건은 완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목욕하는’은 적절하지 않고, (4ㄴ)은 앞으로 ‘먹을’ 곡식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먹는’은 부적절하다.

응웬 티 프엉 투·양명희(2021:401)에서는 베트남어는 고립어로서 어미가 없는 대신 시간 관형어 내포절의 시간 부사어를 사용해 시제를 표현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어의 시제 어미와 그에 해당하는 시간 부사어의 기능적 동일성을 인지시키는 것이 이에 대한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오류 층위에 따른 오류 유형을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 오류 층위에 따른 오류 유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발음 음소 오류 중에서 베트남어에 없는 중성 ‘ㄷ’ 발음 오류가 제일 많이 나타나고 활용 오류로는 불규칙 오적용 때문

에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이 오류들은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어의 차이점 및 목표어의 복잡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러나 활용 오류의 또 다른 원인인 동사·형용사 혼동이나 통사 시제 오류는 목표어 뿐만 아니라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이기 때문에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언어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교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2. 오류 양상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 분석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 양상은 ‘누락(omission), 대치(replacement), 첨가(addition), 오형태(incorrect form)’ 오류의 네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고 이를 급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9> 오류 양상별 관형사형 어미 오류

오류 양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누락	41 (25.6%)	31 (20.4%)	51 (14.7%)	64 (14.7%)	24 (8.5%)	16 (6.7%)
대치	28 (17.5%)	48 (31.6%)	130 (37.6%)	185 (42.6%)	131 (46.2%)	130 (54.5%)
첨가	8 (5%)	9 (5.9%)	19 (5.5%)	26 (6%)	20 (7.1%)	15 (6.3%)
오형태	9 (5.6%)	8 (5.3%)	17 (4.9%)	38 (8.7%)	26 (9.2%)	14 (5.9%)

<표9>에서 보인 바와 같이 오류 유형 중에서 대치 오류의 수가 가장 많다. 급수별로 살펴보자면, 1급에서는 누락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2급과 특히 3급부터는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한 가지 유형씩 살펴보겠다.

4.2.1. 누락 오류

누락 오류는 필요한 형식을 사용하지 않은 유형의 오류이다. 급수별로는 1급일 때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급수가 올라갈수록 오류의 출현 빈도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표 10> 급수에 따른 누락 오류 감소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누락 오류율	25.6%	20.4%	14.7%	14.7%	8.5%	6.7%

그리고 고빈도의 누락 오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11> 고빈도의 누락 오류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문법 요소 누락	18	11	19	22	14	7
형태 요소 누락	11	7	9	31	8	6
총 누락 오류	41	31	51	64	24	16

누락 오류의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 ㄱ. 요리 공부를 해서 시험도 치고 자격증도 받으면 작은 식당을 직접 차려서 만든 음식을 팔아요(√팔 거예요). (4급/문어/#13456)
- ㄴ. 사는 물결이 생각보다 나쁘다(√나쁠 수 있다). (3급/문어/#6097)
- ㄷ. 꿈이 아 꽃집을 열리예요(√여는 것이예요). (1급/구어/#28845)
- ㄹ. 특히 컴퓨터를 좋아해서 컴퓨터를 고치(√고치는) 가게에서 아주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요. (2급/문어/#6179)

- ㄱ. 외국인 선생님이 되려면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전하(√ 전달하  
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급/문어/962)
- ㄴ. 어 그냥 친구 되수 없어요(√ 될 수 없어요) (4급/구어/#16636)
- ㄷ. 사장님이 혼내 때마다(√ 혼낼 때마다) 아 무섭고 속상했을 때  
도 있었습니다. (6급/구어/#19203)

오류의 유형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자면, (5ㄱ~ㄴ)은 문법 요소 누락 오류에 해당하고, (5ㄷ~ㄱ)은 형태 요소 누락 오류에 해당한다. (5ㄱ)은 시제 누락 오류이고, (5ㄴ)은 맥락에 맞는 표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5ㄷ)은 ‘것이다’ 구문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고, (5ㄹ, 5ㄴ)은 피수식 명사와 수식 용언 사이에 전성어미를 누락시킨 오류이다.

(5ㄷ~ㄱ)은 덩어리 표현 내부의 관형사형 어미 형태를 누락한 오류이다. 형태 오류는 주로 ‘-을/르 것이다’, ‘-을/르 수 있다/없다’, ‘-을/르 때’ 등과 같은 덩어리 표현에서 많이 나타났고, 특히 문어보다 구어에서 많이 발견되었다(구어 54회, 문어 10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어의 특성상, 베트남어에는 없는 문법요소인 어미가 급수가 낮을수록 빈번히 누락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4.2.2. 대치 오류

다음으로 대치 오류를 살펴본다. 대치 오류는 전체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1급부터 6급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

<표 12> 급수에 따른 대치 오류 증가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대치 오류율	17.5%	31.6%	37.6%	42.6%	46.2%	54.5%

대치 오류는 시제 표현, 문맥에 적절한 표현, 덩어리 표현 내부의 올바른 형태를 잘못된 형태로 대치하여 사용한 오류이다. 예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6) ㄱ. 나는 추억이 많은데 가장 기억한(√기억나는) 것이 내 친한 친구의 생일이다. (3급/문어/#6159)  
 ㄴ. 뉴스나 TV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많이 볼 수 있는 활동에 관심을 갖고 안 입은(√입는) 옷이나 음식을 보내주는 것이다. (5급/문어/#6192)  
 ㄷ. 처음에 우리는가 얼마나 기대했는지(√기대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던 것(√노력했는지)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다. (6급/문어/#8647)  
 ㄹ. 그것은 무심함이 아니고 어떻게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4급/문어/#6109)  
 ㅁ. 어 가장 아아니요 가장 사랑한 때(√사랑할 때) 남자들은 여자에게 빨간 장미를 자주 줍니다. (2급/구어/#18637)  
 ㅂ. 저는 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는(√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6급/구어/#19204)

(6ㄱ~ㄷ)는 시제를 파악하지 못해 시제 어미를 다른 어미로 사용한 대치 오류이다. (6ㄹ)는 맥락에 맞는 표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오류이다. (6ㅁ~ㅂ)는 덩어리 표현으로 배운 문법인데 세부적인 형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해서 발생한 오류들이고 위에 누락 오류와 같이 주로 ‘-을/르 때’, ‘-을/르 수 있다’ 등과 같은 덩어리 표현에서 발생하였으며, 주로 구어에서 발생하였다. ‘시제 오류, 표현 선택 오류, 형태 오류’ 이 세 가지 유형은 누락 오류의 발생 유형과 유사한데, 대치 오류에서의 횟수가 더 많다. 급수가 올라갈수록 더 복잡하고 다양한 표현을 많이 배

우게 되기 때문에 선택적 오류가 생겨 이러한 유형의 대치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치 오류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문법 오류는 누락 오류에서는 출현하지 않는 것이다.

- (7) ㄱ. 그런데 지금 미래에 대한(√미래에 대해) 걱정해야 해서 어린 시절 놀이를 할 수 없어요. (3급/문어/#974)
- ㄴ. 살다 보니까 부부 생활에 만족하는(√만족하면서) 지냈었어요. (4급/문어/#14649)
- ㄷ. 내 생각에는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위한(√위해) 노력해야 한다. (5급/문어/#14196)

(7)은 문법 오류들인데, 위에서 보인 예문처럼 ‘관형사절 + 머리 명사’ 구성을 ‘관형사절 + 서술어’로 잘못 구성한 예를 볼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부사어 + 서술어’, ‘관형어 + 명사’의 한국어 문장 구조를 잘 이해 못 하거나 주의하지 않아서 생긴 오류로 파악된다.

대치 오류 중에는 적은 수의 발음 오류도 발견되었다. 앞서 발음 오류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ㄱ’ 음소를 ‘ㄴ’ 음소로 잘못 발음한 경우이다.

- (8) ㄱ. 어제가 어 베트남에 있을 때(√있을 때) ... (5급/구어/#15435)
- ㄴ. 아 어 주변 사람 아 주변에 에너지를 전할 수 있다는(√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급/구어/#19203)

학습자가 빈번하게 범한 다른 오류로는 동격 관형사절의 어미를 관계 관형사형 어미로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9) 가. 그 생각 중에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가족을 잘 지키고 자식을 잘 키우면 성공이고 돈도 많이 있으면도 좋지만 생활을 편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게 더 중요한(√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2급/문어/#18786)
- 나. 오늘 쓰기 시험을 통해 한국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감사하다는) 말을 보내하고 싶다. (6급/문어/#17125)
- 다. 나는 고3 때 학교에 다녔을 때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봉사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는 힘든다는(√힘든다는) 소리를 들었다. (5급/문어/#6192)
- 르. 신문에 따르면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거나 심리 치료를 해야 한다는(√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4급/문어/#6136)

위는 긴 관형사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예문들이다. 동격 관형사절이나 관계 관형사절의 사용 유무는 수식받는 명사의 의미 자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동격 관형사절은 주로 발화나 사유, 인지 내용과 관련된 머리 명사를 수식하며, 인용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짧은 관형사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박미은 2021:2장). (9ㄷ)처럼 동격 관형사절의 종결어미를 맞게 사용했는데도 동사, 형용사 결합 제약을 잘 모르거나 주의하지 않아서 오류도 출현하였다. 그리고 (9ㄹ)은 긴 관형사절과 짧은 관형사절의 사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인데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동격 관형사형 어미 사용을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4.2.3. 첨가 오류

이어서 첨가 오류의 오류 유형들을 알아볼 것이다. 앞서 <표9>에서 살펴본 것처럼 첨가 오류는 누락이나 대치 오류처럼 높은 비율을 차지

하는 오류가 아니며, <표5>에서 보인 바와 같이 주로 ‘기타’ 항목에서 많이 나타났다. 즉 관형사절의 오류라기보다는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되어 있는 다른 범주에서 사용 오류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표현을 많이 학습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자신의 의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적당히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10ㄱ)은 ‘-(으)면’과 ‘-(으)려면’, (10ㄴ)은 ‘-(으)ㄴ 수 있-’과 ‘-어/아-’의 선택이 틀린 것으로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 (10) ㄱ.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살려면)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친한 친구가 한 명은 있어야 한다. (3급/문어/#4616)  
 ㄴ.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들어가는) 것이다. (4급/문어/#13471)

둘째, 팜홍프엉(201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가 복잡하고 긴 문장을 선호하는 것과 관련된다. 복잡하고 긴 문장을 선호하는 탓에 불필요한 말을 더 첨가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 (11) ㄱ. 살고 공부하는 것은 어 다행이고 행복한 것입니다(√행복합니다). (1급/구어/#16453)  
 ㄴ. 지금까지 저는 운동하는 것을(√운동을) 자주 안 하고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2급/문어/14262)  
 ㄷ. 나와 같은 한국어 학습자로서 말하자면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책에서 나오는 명소를 구경할 수 있는 것이 귀한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5급/문어/#11384)

ㄹ. 그러면 목욕한 물로 청소할수있는것이냐(√/청소하거나) 우유  
를 버리기 전에 다 ~~떡~~어야 하는(먹는) 것... (4급/문어/6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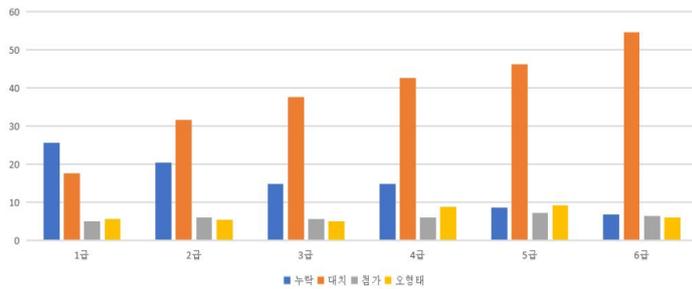
이 오류는 한국어 표현을 많이 배우게 되는 중·고급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1ㄱ, ㄴ)과 같이 초급 수준에서도 발생한다.

#### 4.2.4. 오형태 오류

마지막으로 오형태 오류를 살펴본다. 오형태 오류는 어휘의 조합 양상이 잘못되었거나 곡용 및 활용의 형태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유소영·강현화 2019:303). 이는 앞서 살핀 형태 오류 중 활용 오류와 유사하며, 실수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간단히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2) ㄱ. 예를 들면 SNS 같으(√/같은) 경우 자기 의견은 자유롭게 올리는데 SNS 사용자들은 그 의견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6급/문어/#14967)
- ㄴ. 왜냐면 회사에서 뽕뽕 후에(√/뽕은 후에)... (5급/구어/#15428)

이상의 누락, 대치, 첨가, 오형태 오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3> 오류 유형별 양상

1급에서는 누락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2급과 특히 3급부터는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다. 누락 오류가 급수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첨가 오류와 오형태 오류 유형은 급수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인 지점이다. 대치 오류는 덩어리 표현 내부의 어미 사용 오류에 더하여, ‘관형사절 + 머리 명사’의 문장 구조와 관형사절의 유형(동격 관형사절과 관계 관형사절)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는 급수가 올라갈수록 통사 층위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며(4.1 절), 향후 교육 내용 및 교육 방안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 5. 결론

지금까지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절 사용 오류 양상을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습자 말뭉치에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오류 용례를 총 487개 표본, 1,459 어절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를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급수에서 ‘-을/르’ 사용에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둘째, 오류를 그 층위에 따라 발음, 형태, 통사 오류로 나누어 보았다. 발음 오류는 ‘ㄹ’ 음소의 발음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보였으며, 발음 오류 빈도는 급수가 올라갈수록 감소한다. 형태 오류 중에서는 활용 오류가 가장 많다. 통사 오류는 주로 시제 오류인데, 특히 내포절의 시제 사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셋째, 오류 양상은 누락, 대치, 첨가, 오형태로 나누어 살폈다. 1급에서는 누락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2급부터는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증가한다. 누락 오류는 관형사형 어미를 쓸 자리에 어미를 누락하는 오류가 대표적이다. 대치 오류는 시제 판단과 동격 관형사절 구성에서 오류가 나타났다. 첨가 오류는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된 다른 문법 범주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오형태 오류는 형태 오류와 유사하였다. 오류의 원인은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파악하였다.

본고에서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 오류 양상을 밝히는 데 그쳤다.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관형사절 교육 방안 연구는 후고를 기약한다.

투고마감일	: 2022년 07월 31일
투고연장일	: 2022년 08월 21일
논문투고일	: 2022년 08월 20일
심사개시일	: 2022년 08월 30일
심사완료일	: 2022년 09월 08일
게재확정일	: 2022년 09월 21일

## ■ 참고문헌

### 1. 연구 보고서

강현화 외(2015), 「2015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기초 연구 및 구축 사업」, 국립국어원.  
 \_\_\_\_\_(2016), 「2016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연구 및 구축 사업」, 국립국어원.

### 2. 단행본

고석주·김미옥·김제열·서사규·정희정·한송화(2004),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오류 분석』, 한국문화사.

이승연(2012),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응용언어학 개론』, 태학사.

이정희(2003),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박이정.

### 3. 논문

김서형·홍종선(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확대문 교육 방안 -관형사절을 중심으로-」, 『문법교육』13, 한국어문법교육학회, 115-136쪽.

덩티투히엔(2014),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나는 내포문의 오류 양상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박미은(2021), 「현대 한국어 인용명사 구문에 대한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서상규·유현경·남윤진(2002),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1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7-156쪽.

사회정(2018), 「한국어 학습자의 문장 구조 다양화를 위한 관형절 내포문 사용 양상 연구」, 『이중언어학』72, 이중언어학회, 87-121쪽.

성지연(2010), 「한국어 학습자의 내포문 사용 오류 연구 : 대치 오류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35,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51-75쪽.

왕현풍(2021), 「과제 유형에 따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중간언어 변이 연구」, 『인문사회』21,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167-1181쪽.

유소영·강현화(2019),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오류 주석의 쟁점과 실제」, 『언어사실과 관점』4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83-320쪽.

유형선(2007),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문장 구성과 문형에 관한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29, 우리어문학회, 51-79쪽.

응웬 티 꾸안안(2020), 「베트남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한국어교육연구』12, 한국어교육연구학회, 151-175쪽.

- 응웬 티 프엉 투·양명희(202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내포문 비교·대조 연구」, 『語文論集』88, 중앙어문학회, 381-411쪽.
- 이준호(2013), 「한국어 명사구 보문질의 교육 연구 -교재 분석 및 학습자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2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11-237쪽.
- 이필영·임유중(2003), 「한국 아동의 문장 구성 능력 발달 단계」, 『한국어교육』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57-293쪽.
- 정진(2020),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동격관형절 사용 양상」, 『한국어 의미학』70, 한국어의미학회, 247-267쪽.
- 조수현(2010), 「한국어 학습자들의 관계절 사용 양상 연구」, 『比較文化研究』19,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359-388쪽.
- 전티호영(2020), 「베트남에서의 한국학 교육 및 연구 현황과 방향」, 『한국어교육』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57-274쪽.
- 최보선·박수빈(2019),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절 사용 양상 연구 -한국인 대학생과의 실제적 언어 사용 비교 관점에서-」, 『문화와 융합』41-3, 한국문화융합학회, 483-518쪽.
- 팜홍프영(2016), 「베트남 고급 학습자의 글쓰기에 나타난 한국어 관형사절 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 『리터러시 연구』18, 한국리터러시학회, 189-222쪽.
- 한송화(2015),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양상 연구 -언어권과 한국어 능력 급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國語教育學研究』50-4, 국어교육학회, 496-525쪽.
- 혁미평·홍종선(2016), 「중국어인 학습자의 한국어 관형절 내포문 사용 양상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33, 한국어문학회국제학술포럼, 115-148쪽.

##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 관형사형 어미 오류 연구

- 한국어 수준별 오류 양상을 중심으로 -

응웬 티 프엉 투·박미은

이 연구는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오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베트남어와 한국어는 언어 유형론적으로 차이가 있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내포문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본고에서 이를 위한 연구의 시론으로서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어 관형사형 어미 사용 오류 양상을 살피고 분석하였다.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 오류 주석 말뭉치에서 총 487개 표본, 1,459 어절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자료를 추출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급수에서 ‘을/르’어미 사용에 오류가 제일 많이 발생하였다. 둘째, 베트남어에 없는 ‘르’ 음소의 발음 오류, 불규칙 활용과 동사·형용사의 혼동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형태 활용 오류, 내포절의 시제 사용에 대한 통사 오류를 보였다. 셋째, 오류 유형별로는 1급일 때는 누락 오류가, 2급부터는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오류의 원인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 문장 구조의 이해 부족으로 파악하였다.

핵심어 :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관형사절, 관형사형 어미, 오류 분석

■ Abstract

---

A Study on the Error of Adnominal suffix  
in the Vietnamese Learners' Corpus

— Focus on Error pattern by Korean Level—

NGUYEN THI PHUONG THU\* · PARK MIEUN\*\*

This study aims to observing the patterns of errors in using adnominal suffix in the Vietnamese Learner's Corpus. Due to the differences of Vietnamese and Korean linguistic typologic, Vietnamese Korean learners are running up against the big problems in learning Korean embedded sentence. This study based on above rationales in order to examine and analyze the errors in using adnominal endings of Vietnamese Korean learners.

The results of analyzing a total of 487 samples and 1,459 words of Vietnamese Learner's Corpus are as follow. Firstly, in all rating, the most errors occurred in the use of '을/ㄹ(eul/l)' endings. Secondly, errors were shown in the pronunciation of the 'ㄹ(l)' phoneme that do not exist in Vietnamese, in morpho errors caused by irregular application and confusion of verbs and adjectives, and syntactic errors in the use of tenses in nested

---

\* Chung-Ang University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clauses were shown. Thirdly, omission errors occurred the most in the first class while replacement errors occurred mostly in the second class. The reason of errors were found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adjective morpheme endings and Korean sentence structure.

Key-words : Vietnamese Korean learners, Korean Learner Corpus, Adnominal clause, Adnominal suffix, Error analysis

